

천국은 마치

8강. 열 처녀 비유(마태복음 25:1-13)

돌아보기

1.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돌아본다면?
2. 지난 강의 때 기억에 남는 것은?
3. “열 처녀 비유”를 읽고 느낀 점은?

📖 ‘열 처녀 비유’(마 25:1-13) 읽기

– 개역개정 → 새번역 → 새한글 → 메시지 성경 등 다양한 번역으로 읽어

📖 ‘열 처녀 비유’에 나오는 등장 인물과 장치

- 혼인 잔치(신랑)
- 열 처녀 (슬기 있는 자들, 미련한 자들)
- 등, 기름

📖 ‘열 처녀 비유’의 문맥

- 마 23:37-39 :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
- 마 24장 : 성전 파괴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징조 등 종말 설교
종말에 관한 비유(도둑 비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비유)
- 마 25장 : 종말에 관한 비유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심판 비유)

📖 주후 1세기의 상황 “약혼과 결혼”

- 예수를 신랑으로, 우리(교회)를 신부로 비유(마 9:15, 고후 11:2, 엡 5:31-32)
- 약혼 : 신랑은 신부의 집에 감사의 표시로 대가를 지불(소유권, 결혼 지참금)(고전 6:19-20)
- 포도주로 혼인 언약 : 값을 받으면 포도주를 따라주고, 받아 마시면 결혼을 승낙(마 26:27-28)
- 신랑은 다 준비되면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남(요 14:2-3)
- 그 때는 신랑 아버지가 결정함(마 24:36, 행 1:7), 신부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함(마 25:13, 막 13:32-33, 35)
- 약혼 기간은 보통 1~2년 정도, 그 동안 신부는 신랑이 주고 간 선물을 보며 기다림(요 16:7)
- 약혼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순결임(엡 5:25-27, 고전 6:17-18)
-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준비를 마치면,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을 신부의 집으로 보냄
- 신부는 열 명 정도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을 맞이함
- 들러리들은 신부를 동반하여 신랑의 집까지 행진하여야 하기에 많은 등불의 기름이 필요함
- 신랑과 신부는 합하여 결혼을 하고, 하객들을 초대하여 7일 동안 혼인잔치를 베풀

📖 "열 처녀 비유"

- 열 처녀 : 신부의 들러리(의식이나 공동체 행사를 할 때 적어도 열 명은 되어야 함)
- 더디 오므로, 밤 중에 : 신랑되신 주님의 재림을 예상 할 수 없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
- 이 비유에서 신부는 등장하지 않음
- 미련한 자들 :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음, 신랑이 늦게 올 것에 대한 대비를 못함(눅 18:28-32)
손에 든 등불 하나면 충분할 정도로 신랑이 일찍 오리고 생각함.
기름 파는 자에게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옴으로, 문이 닫힘.
- 슬기 있는 자들 :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함
기름을 나눠주면 결혼식을 망칠 수 있음(들러리의 역할에 충실)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감
- '깨어 있으라' : 잠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것

천국(하나님의 나라)은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금, 오늘 일상의 삶에서 깨어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준비는 마지막 날에 사거나 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료 기준 : 6강 이상 시청 후 문자나 댓글(11월 23일(주)까지)
한영대학 수료식 : 11월 26일(수) 수요말씀집회 시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한영교회